

## 미얀마 3대 불교 성지의 역사성과 전통성 연구

주 경 미\*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현대 미얀마의 3대 불교 성지로 알려진 양곤의 쉐다곤 사원, 짜익토의 짜익티요 황금바위 사원, 만달레이의 마하무니 사원의 역사성과 순례공간으로서의 전통성을 고찰했다. 이 세 불교 성지는 모두 석가모니 붓다시대부터 전해진 성물들을 봉안한 오래된 성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15세기 이후부터 영국 식민지시대의 기간에 형성된 비교적 새로운 성지들이다. 이 성지들은 미얀마 역사의 정치·사회적 변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형성되었으며, 특히 영국 식민지시대에 민족주의적 불교 문화 전통과 함께 발전했다. 이 성지들은 미얀마 불교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곳들로서, 모두 성소 내의 여성 출입금지 전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교적 보수성을 따르는 전통 의례들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젠더 차별 공간과 의례들은 여성 불교도들의 종교 주변화 및 불교 기복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불교 성지, 순례, 젠더, 마하무니, 쉐다곤, 짜익티요

\* 충남대학교 강사

## I. 머리말

모든 종교에서는 종교의 발상지를 비롯한 성지(聖地, sacred site/place)가 있다. 불교 문화권에서는 석가모니의 일생과 관련된 인도의 팔대성지(八大聖地, The Buddhist Eight Great Sacred Sites)가 가장 중요하며, 이 팔대성지는 불교 초기부터 불교 사상사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불교의 전래와 함께 아시아 각 지에는 다양한 불교 성지들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성지들은 불교도들의 신앙의 중심지이자 이상적 공간으로서 끊임없는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순례지(巡禮址, pilgrimage site)로 여겨지고 있다. 불교도들은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인도의 팔대성지를 순례하러 떠나기도 했다(Coleman et al. 1995). 이러한 불교 성지들은 역사적 전승을 가진 유적이이기도 하지만, 종교적 권능을 가진 성물(聖物, sacred relic)을 봉안한 성지로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종교인들의 순례지가 되었던 수많은 불교 성지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관점과 종교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성지로서의 진정성(眞正性, authenticity)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불교 성지들에 전하는 전승들은 역사적 신빙성이 없고 후대에 형성 및 각색된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비판이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교 성지들이 어떠한 역사성을 가지고 언제 형성되어 발전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성지들의 종교적 진정성을 어디에서 찾아야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전역에는 수많은 불교 성지들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불교도들에 의해서 석가모니 붓다로부터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불교 성지로 손꼽히는 곳들은 상좌부 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해온 미얀마 지역에 많이 남아 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 전역에 남아 있는 불교 성지들 중 상당수는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 붓다로부터 직접 전해진 성물들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석가모니 붓다가 직접 방문했던 곳이라는 전승을 가진 곳도 많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곳으로 알려진 세 곳의 성지가 현대 미얀마의 3대 불교 성지이다.

현대 미얀마의 3대 불교 성지는 양곤의 쉐다곤 사원(Shwedagon Pagoda Complex),<sup>1)</sup> 몬(Mon)주 짜익토(Kyaikto)의 짜익티요(Kyaik Hti Yo) 황금바위(the Golden Rock) 사원, 그리고 만달레이(Mandalay)의 마하무니(Mahamuni) 사원을 말한다(Stadtner 2011: 18). 이 3대 불교 성지의 대표적 성물은 모두 석가모니 붓다로부터 직접 전래된 것이라고 전승되고 있는데, 쉐다곤 사원과 짜익티요 황금바위 사원의 성물은 붓다의 사리(舍利, sarira)이고, 마하무니 사원의 성물은 붓다 재세시에 만들어졌다는 불상이다. 이때, 사리는 탑 안에 모셔진 상태로 전래되어 오기 때문에, 사리가 모셔진 탑 자체가 성물로 인식되는 성물 개념의 확장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의 유명한 미얀마 불교문화사학자 도날드 스타트너(Donald M. Stadtner)는 이 성지들에 내려오는 전승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후대의 각색이며, 이 세 성지 모두 붓다 재세시의 유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여러 번 지적하였다. 스타트너의 연구는 미얀마 3대 불교 성지의 역사성과 성지로서의 진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였다. 그에 의하면, 이 세 성지는 미얀마 역사 발전 과정에

1) 미얀마에서 불교 사원에 해당하는 말은 “파야(paya)”가 가장 일반적이며, 탑(塔)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파고다(pagoda)”, “제디(Zedi, Cedi)”, “파토(pahto)” 등으로 불린다. 파고다와 제디는 건축물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파토는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외에도 승려의 거주공간인 승원(僧院)을 뜻하는 “짜웅(Kyaung)”과 석굴사원 형식에 해당하는 “우민(umin)”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강희정 2019). 여기에서는 한국 불교건축물의 명칭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원(temple)으로 통칭하거나 필요에 따라 미얀마어 표기를 병용한다. 현재 미얀마어의 한글 표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산박물관(2019)에서 개최한 특별전 도록의 표기 방식을 따라서 절충식으로 표기한다.

서 근세 이후에 형성된 비교적 현대적인 성지이다(Stadtner 2008; Stadtner 2011). 그가 미얀마 3대 불교 성지의 역사성과 진정성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얀마의 3대 불교 성지는 미얀마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도들에게까지 매우 중요한 종교적 순례지로 여겨지고 있다. 2020년 전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지금은 전면 중단되기는 했지만,<sup>2)</sup> 2020년 초까지 한국에서도 미얀마 불교 성지 순례 관광은 한동안 성행했으며 관련 책자도 다수 발간되었다.<sup>3)</sup>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미얀마 3대 불교 성지의 역사성과 진정성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 성지들이 가진 문화적 전통성의 의미에 대해서도 거의 논의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미얀마의 3대 불교 성지는 사실 각 성지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 자체의 역사적 진정성보다는 현대 미얀마 불교도들의 신앙적 차원에서 형성된 종교적 진정성에 의미를 두어야 하는 곳들이다. 이 성지들은 미얀마의 정치사적 변화에 맞추어 형성된 곳으로서, 성지 형성기의 정치·문화사적 변화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성지들은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여러 가지 종교적 기적들, 혹은 불교도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건 등을 통해서,<sup>4)</sup> 현대 미얀마 불교도들이 평생 꼭 순례하고 싶은 불교 성지로서의 종교적 진정성을 획득한 곳들이다. 그러므로 이 성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2)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현황에 대해서는 홍문숙(2021) 및 홍문숙 외(2022) 참조

3) 한국에서 발간된 미얀마 성지 순례나 여행기 성격의 책은 상당히 많으며, 이 책들에서는 대부분 미얀마의 3대 성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3대 성지의 진정성과 역사성에 대한 검토보다는 관광지 소개에 가까워서 아쉬운 점이 많다(김형규 2005; 서성호 2011; 차장섭 2013; 송강 2015; 서성호 2017).

4) 각 성지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거의 없다. 다만 각 성지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승들에 대해서는 스타트너(Stadtner 2011) 참조. 필자도 미얀마인들에게 3대 불교 성지 순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등의 기복적(祈禱的) 자기체험담을 들은 경험이 있다.

종교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진정성과 전통성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미얀마 불교도들의 종교적 진정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각 성지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종교적 의례들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미얀마 3대 불교 성지의 진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 성지들의 역사성과, 그 곳들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의례의 보수적 전통성을 고찰하겠다. 특별히 미얀마 3대 불교 성지에서는 순례 과정에서 성물이 모셔진 공간 접근성과 의례에서 젠더(gender)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성이 강한 의례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계승해가고 있다. 미얀마 불교계에서는 지금도 비구니들이 정식 출가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 불교계와는 달리 비구니계 자체가 없는 전통을 지니고 있는데(이수창 2008), 이러한 미얀마 불교의 젠더 차별성이 이러한 불교 성지의 공간 접근성에도 반영된 것이다. 젠더 차별성은 미얀마 불교 문화의 중요한 보수적 전통성이자 특징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불교 성지 순례의 기원과 미얀마 불교에서의 성지 순례 전통에 대해서 살펴본 후, 각 성지별 역사성과 전통성의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미얀마 3대 불교 성지는 미얀마 불교 문화의 전통성과 보수성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하며 대표적인 문화사적 공간들이다.

## II. 불교 성지 순례의 기원과 미얀마 불교 문화

불교 문화에서 성지 순례는 석가모니 붓다의 열반 이후부터 시작되어, 붓다의 생애를 관상(觀相)하기 위한 수행의 방편으로서 중요시되었다. 팔리어나 한역 경전의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이나 『장아함경(長阿含經)』과 같은 경전에서는 붓다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

한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난 네 지역을 순례하여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억함으로써 수행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안양규 2000; 주경미 2015). 이 네 지역은 보통 불교의 사대성지(四大聖地)라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불교도의 성지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이 네 곳 중에서 첫번째는 붓다께서 처음 태어나신 곳, 즉 불생처(佛生處)인 네팔의 룸비니(Lumbini)이다. 두번째는 붓다께서 처음으로 득도(得道), 즉 깨달음을 얻으신 곳으로 불초득도처(佛初得道處)라고 하는 인도의 보드가야(Bodhgaya)로서, 유명한 보리수가 있는 마하보디 사원(Mahabodhi temple)에 해당한다(그림 1). 세번째는 붓다께서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리시고 교단을 이룩하신 곳으로 불전법륜처(佛轉法輪處)로 알려진 인도의 사르나트(Sarnath)이다.<sup>5)</sup> 마지막은 붓다께서 열반에 드신 곳으로 불반니원처(佛般泥洹處)로 알려진 인도의 쿠시나가라(Kushinagara)이다. 이와 같은 불교의 사대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종교적 기념 행위이자 자기 수행의 방편이었다.<sup>6)</sup> 이렇게 여러 초기 경전에서 사대성지를 중심으로 하는 성지 순례를 권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불교의 성지 순례는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장아함경』과 『대반열반경』에 의하면, 붓다의 생전에도 붓다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붓다의 열반 이후에는 붓다 대신 사대성지의 대체 방문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이것을 불교 성지 순례의

5) 『長阿含經』 권 4, 『遊行經』 第二後(T1, 1:26a03-08) 및 『大般涅槃經』 卷中(T7, 1:199c01-09) 참조. 이하 T...는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의 수록번호와 권:쪽 표시임. 법현의 『대반열반경』을 비롯한 초기 경전에는 사념처(四念處), 혹은 사대처(四大處) 등의 명칭으로 사대성지가 언급되어 있다(안양규 2000).

6) 불교 성지 순례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종교 의례적 측면에서의 순례 연구, 순례자들이 남긴 기록에 대한 역사적 고증 연구, 그리고 최근 종교적 관광으로서의 순례 관광에 대한 연구 등 매우 다양한 장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 성지 순례에 대한 개괄로는 다음 참조 Coleman et al. 1995: 170-195; 안양규 2000; 우혜란 2008; 이주형 외 2009; Stoddard 2010; Bruntz et al. 2020.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붓다를 직접 찾아가는 것과, 붓다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으로서의 성지 형성화 과정은 다소 개념적 차이가 있다. 대체로 불교 성지 순례가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성지 유적의 복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원전 3세기 아쇼카(Ashoka)왕 연간 이후로 본다(Huntington 1985). 그렇지만 아쇼카왕 연간의 순례 관련 자료는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성지 위치 비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불교미술사에서는 불전팔상(佛傳八相)이 조형화되는 굽타시대 이후부터 팔대성지 순례가 보편화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팔대성지는 사대성지에다가 붓다의 생애 중에서 중요한 네 가지 기적이 일어났던 상카시아(Sankasya), 쉬라바스티(Sravasti), 바이살리(Vasaili), 라즈기르(Rajgir)를 더한 것이다(이주형 1993; 주경미 2009: 142-143; 주경미 2015: 203-204).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래된 이후, 동아시아의 구법승(求法僧)들은 사대성지와 팔대성지, 그리고 팔대성지에 세워진 팔대탑(八大塔)을 순례하기 위해서 인도를 방문했던 성지 순례자들이었다(이주형 외 2009; 주경미 2009; 남동신 2010).

현존하는 불교 성지는 붓다의 생애와 관련된 팔대성지 이외에도 상당히 많다. 특히 붓다의 생애와 관련된 여러 곳 뿐만 아니라, 붓다의 유해인 사리, 붓다의 이미지를 조형화한 각종 불상이나 붓다가 남겼다고 하는 각종 성물들을 봉안한 곳, 그리고 붓다의 제자나 후대의 고승들과 관련된 지역들, 그리고 신이(神異)나 기적 같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알려진 성스러운 지역 등이 불교 성지로 알려져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5세기 법현(法顯)의 인도 성지 순례 이후부터 성지 순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불교도들에게 인도 성지 순례는 붓다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중요한 수행 방식의 하나로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와 함께 아시아 전역에는 붓다의 성물을 옮겨온 곳이나 구법승이나 고승들의 자취가 남은 지역이 새로

운 불교 성지로 형성되면서, 성지 순례가 점차 보편화되었다.<sup>7)</sup>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도 불교가 상당히 일찍 전해진 지역 중 하나이다. 미얀마 불교사에서는 미얀마에 불교가 전래된 것이 석가모니 붓다의 재세시였다고 전하지만, 미얀마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불교 유적들은 대체로 붓다 재세시보다 훨씬 후대인 기원전 2-1세기 경 이후의 유적들이다. 현재 미얀마에서 불교 성지로 알려진 곳들 중의 대다수는 석가모니 붓다의 재세시에 전해진 성물을 모신 곳이라는 전승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전승들은 역사적 검증이 어렵다. 미얀마의 초기 불교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적들은 미얀마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뽀(Pyu) 시대의 불교 유적들이지만, 아직까지 이 유적들의 연대 비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부산 박물관 2019). 미얀마 서부 라카인(Rakhaine) 지역의 단야와디(Dhanyawadi)와 베살리(Vesali) 지역도 그 역사가 기원전 3천년경까지 올라가며 붓다가 재세시에 실제로 방문한 곳이라는 전승이 내려오지만, 최근 발굴조사에 의하면 대체로 대부분 유적들은 기원후 4-5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Hudson 2005; Kyaw 2007).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 전승들을 역사상 실제 일어났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불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전해지면서 형성된 수많은 불교 성지들은 대부분 불교의 전래와 함께 형성된 것으로, 석가모니 붓다 재세시의 유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붓다가 실제로 살았던 동인도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동인도 지역을 제외한 아시아의 불교 성지들은 성지 형성 과정에서 신이, 즉 기적을 일으키는 붓다의 성물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통해서 성지로서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7) 현대 한국 불교계에서도 동남아 불교 성지 순례와 성물의 전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정기선 2006), 붓다의 진신사리로 알려진 성물 유통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우혜란 2018).



그림 1. 인도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과 현대 순례자들. 19세기 재건 건축물.  
출처 : 2018년 1월 30일 필자 촬영



그림 2. 미얀마 바간 마하보디 사원. 13세기 창건 건축물.  
출처 : 2020년 2월 14일 필자 촬영

부여받은 경우가 많다. 신이를 일으키는 붓다의 성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붓다의 열반 후에 남겨진 육신의 잔재인 뼈, 이빨, 머리 카락 등과 같은 진신사리(眞身舍利)들이었다.<sup>8)</sup> 사리를 비롯한 각종 성물의 존재가 확인된 곳은 바로 성지로 인정받았으며, 순례자들은 성지를 방문하여 그 성물을 둘러싼 각종 불교 의례를 거행하면서 종교적 성스러움을 체험 및 구현하며 성지의 진정성을 인정 및 확산해

8) 사리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는 주경미(2003: 14-21)의 논문 참조. 그외 붓다가 남긴 각종 성물에 대한 개괄은 스트롱(Strong 2004)의 책 참조.

나갔다.

미얀마에서 상좌부 불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불교 국가로 발전한 것은 11세기 바간(Bagan) 왕조 시대이다. 바간 왕조의 왕들은 상좌부 불교를 후원하면서, 바간 지역에 수많은 불탑과 사원들을 건설하였다. 미얀마인들이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기 시작한 기록들도 역시 바간 시대부터 확인되어 주목된다. 특히 바간 시대 미얀마 불교도들은 인도의 팔대성지 중에서도 특히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을 매우 특별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바간에는 인도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을 모방한 사원이 건립되기도 하였다(그림 2).

바간 시대에 이루어진 인도 마하보디 사원의 순례는 11세기 말 짤시따(Kyanziththa, 1084-1114 재위) 왕 때에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사원 중 하나인 아난다(Ananda) 사원을 건립한 짤시따 왕은 11세기 말 인도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에 사람을 보내어 그 사원을 중수했다(Luce 1969: 62-63; 주경미 2020). 당시 미얀마인들의 인도 성지 순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인도 보드가야에서도 바간 시대 미얀마인들의 흔적이 확인되기는 했다(Brown 1988; 강희정 2005). 현재 바간에 남아 있는 마하보디 사원은 바간 왕궁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1215년 바간 왕조의 제야떼잉카(Zeyatheinka, 1211-1234 재위) 왕이 창건하였다(그림 2; 주경미 2015). 13세기 전반 바간에 세워진 마하보디 사원은 바간 시대의 불교도들이 왕실의 후원을 받아 실제로 인도 성지 순례를 행하고, 그 성지의 형상을 그대로 고국인 바간으로 옮겨와서 재현하고자 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인도 불교 성지들이 이슬람교도들의 침입으로 대부분 심하게 훼손되었던 탓이었는지, 13세기 이후 미얀마인들의 인도 불교 성지 순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미얀마 왕실의 인도 보드가야의 불교 성지 순례와 사원 중수는 19세기 영국 식민지시대에 또다

시 이루어지면서, 인도 보드가야 사원의 현대적 재건에 큰 영향을 미쳤다(Geary 2017).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성지의 성물을 고향으로 가져오거나, 혹은 성지의 조형물을 모방한 조형물을 고향에서 새로 만드는 행위는 미얀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시아 불교 순례자들이 했던 행위이다(Guy 1991; 주경미 2008). 특히 11-13세기는 인도 불교가 이슬람교의 침입으로 급격하게 쇠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바간 왕조의 불교도들은 붓다로부터 내려오는 자신들의 불교적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고 보존하려는 의지가 특별히 강했다. 그 결과 바간에서는 인도 불교와는 상당히 다른 독특한 상좌부 불교 중심의 문화 전통을 형성하였다.

미얀마 땅에 인도의 불교 유적지나 조형물이 그대로 모방 및 재현되었던 예로는 바간의 마하보디 사원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다른 지역의 성지나 성물을 미얀마에 전래해오거나, 그것을 미얀마 땅에 새로 재현하여 만드는 행위는 바간 시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미얀마 불교도들의 성지 순례 대상지는 인도뿐만 아니라, 상좌부 불교의 중심지인 스리랑카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특히 14-15세기 이후 미얀마 불교계는 스리랑카 불교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스리랑카의 불교 의례나 성물의 전래 및 스리랑카의 조형물의 모방 현상이 미얀마 불교계에 나타났다.<sup>9)</sup> 미얀마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불교 성지 순례와 조형물의 모방 사례들은 왕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일반인보다는 승려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 미얀마에서는 자국 내의 불교 성지 순례가 매우 보편화되어

9) 대표적인 예로는 바고의 깔라니시마(Kalyani Sima)와 사가잉(Sagaing)의 까웅무도(Kaunghmudaw) 파고다 등이 있다. 다만 현존하는 건축물들은 창건 이후 꾸준히 재건된 모습이므로, 창건 당시의 원형을 비교하기는 다소 어렵다. 이러한 예들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있다. 승려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 순례자들이 불교 성지들을 일상적으로, 혹은 매우 특별하게 순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교 성지 순례는 미얀마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불교 성지 순례 전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현대 미얀마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지들을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순례하면서 성지 순례를 일상화하고 있으며, 미얀마인들의 일상 생활 자체가 불교 사원이나 성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일상적 불교 성지와 사원 순례 생활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기원이 있는 경우나, 일생의 소원으로 순례하고자 할 때에 손꼽는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성지들이 바로 3대 성지이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인레(Inle) 호수 근처의 파웅도(Phaung Daw Oo) 사원을 추가하여 미얀마의 4대 불교 성지라고 하기도 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간 유적도 불교 성지라고 하여, 5대 불교성지라고도 한다. 그렇지만 파웅도 사원의 경우에는 성물로 알려진 작은 돌탑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란이 많으며, 바간 유적의 경우에는 고대 도성 유적으로서 2천여기가 넘는 불교 사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현대 미얀마인들에게 3대 불교 성지로 알려진 세 곳을 중심으로만 살펴보겠다.

미얀마의 3대 성지는 석가모니 재세시에 전래된 특별한 성물이 있는 성지라는 점이 공통된 특징이며, 그 특별한 성물의 영험함에 힘입어 특별히 “영험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영험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서 영험한 곳이라는 것은 기도해서 바라는 바를 이루어 내는 힘을 가진 곳이라는 뜻으로, 다소 기복(祈福) 신앙적 요소가 강한 성지라는 점이 주목된다. 미얀마 불교도들의 3대 성지 순례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단체 관광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미얀마 내국인의 성지 순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유명 관광지들과 목적지 자체는 같더라도, 순례 목적과 순례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성지에서 거행되는 불교 의례도 미얀마식과 다른 나라의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성지 순례에서는 미얀마 전통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Michalon 2018). 다음으로는 각 성지별로, 성지로서의 역사성과 진정성 및 전통성에 대해서 각각 고찰하겠다.

### Ⅲ. 쉐다곤 사원

양곤 시내의 싱구타라(Singuttara) 언덕에 자리잡은 쉐다곤 사원은 석가모니 붓다의 불사리(佛舍利, Buddha's relic) 중에서도 머리카락에 해당하는 불발사리(佛髮舍利, Buddha's Hair Relic)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불사리가 모셔진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쉐다곤 사원에는 붓다의 불사리를 모신 황금빛의 거대한 불탑(佛塔, pagoda)이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그림 3), 그 주위에 각종 불상과 정령의 일종인 “냏(nat)”의 상을 모신 작은 사당들이 다수 있다(그림 4). 사원 내에 보리수와 범종, 작은 공양소탑 등이 다수 흩어져 있으며 사원 중앙으로 가는 사방의 문과 계단이 배치되어 있다(Moore et al. 1999; Ma 2007; Stadtner 2011; 김소영 외 2016). 사원 경내에는 불교 사원 박물관(Temple Museum)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 박물관은 쉐다곤 사원의 역사와 공양품으로 봉헌된 진귀한 유물들을 봉안한 곳으로 흥미롭다. 이 박물관은 일반적인 박물관과는 달리, 공양 의례를 직접 거행할 수 있는 의례 공간으로서도 활용되기 때문에 다소 독특한 성격을 가진 곳이다(Fraser-Lu et al. 2015).

성지로서의 쉐다곤 사원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이해할 때에 가장



그림 3. 쉘다곤 불탑. 미얀마 양곤 쉘다곤 사원.

출처 : 2014년 2월 19일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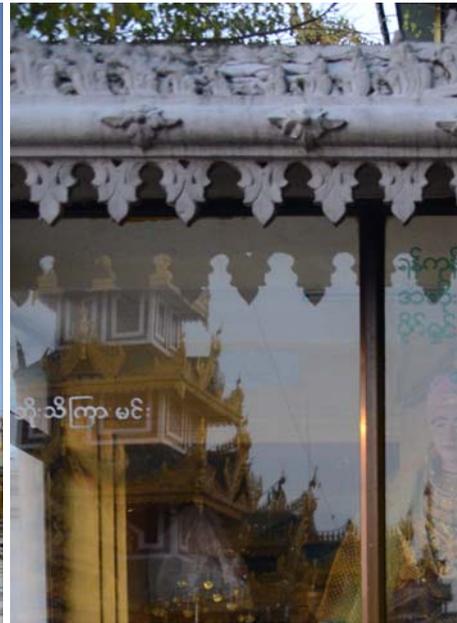


그림 4. 낮 사당에서 기도드리는 미얀마 불교도. 미얀마 양곤 쉘다곤 사원.

출처 : 2015년 12월 11일 필자 촬영

중요한 것은 사원 한쪽에 있는 15세기의 비석 3점이다. 이 비석들은 1880년에 이 사원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15세기 후반 몬(Mon)족이 세운 한타와디(Hanthawady) 왕조의 담마제디(Dhammazedì) 왕연간에 세워진 것이다. 이 비문에 의하면, 석가모니 붓다께서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7주간 선정을 마치셨을 때에, 여기를 지나가던 두 명의 상인 형제가 붓다께 처음으로 음식을 공양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불교에 귀의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두 명의 형제는 붓다로부터 머리카락, 즉 불발사리 8개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6개가 이 쉘다곤 불탑 안에 모셔져 있다는 내용이 이 비석에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명의

상인 형제의 이름은 타푸사(Tapussa)와 발리카(Bhalika)라고 전하는데, 이 비문에서는 이들의 고향이 양곤 인근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 비문에서는 담마제디 왕의 장모인 신소부(Shin Sawbu) 여왕이 1436년부터 이 불탑을 보수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담마제디 왕 연간에 보수 공사를 끝냈다고 전한다(Stadtner 2011; 주경미 2019: 242).

이 비석들의 기록으로 볼 때, 쉐다곤 사원은 15세기 중반 한타와디 왕조 때에 재건된 것이며, 이는 3대 불교 성지 중에서 가장 확실한 문헌 자료를 가진 곳으로서 의의가 있다. 다만 비석의 내용으로 볼 때, 한타와디 왕조 이전의 역사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설화적 요소를 기록한 부분이 많다. 이 사원을 재건한 신소부 여왕과 담마제디 왕은 독실한 불교도였으며, 스리랑카 불교를 받아들여 미얀마의 불교를 개혁했던 인물들이다. 이 비문은 한타와디 왕조가 붓다의 사리를 발견하고 재건함으로써 붓다로부터 정당한 권위를 받았다는 불교적 제왕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부의 역사적 사실과 왕실의 선전을 위한 허구의 전승이 혼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주경미 2019). 특히 붓다의 불발사리 및 두 명의 상인과 관련된 전승은 스리랑카 불교 전승에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그러므로, 쉐다곤 사원은 15세기 중반경 남부지역 민족의 한타와디 왕조 담마제디 왕의 등장과 함께 미얀마 역사 속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새로운 불교 성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Aung-Thwin 2005).

붓다의 불발사리에 대한 전승과 믿음은 15세기 이후 쉐다곤 사원의 증창과 함께 미얀마 불교에서 매우 크게 발전하였다(Schober 2001). 쉐다곤 사원은 16세기 이후에도 민족의 전통에서 중요한 불

10) 불교 경전에서는 붓다의 정각과 7주 선정이 끝난 후에 만난 두 명의 상인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전하는데, 이 상인들의 고향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며 단정하기 어렵다. 어떤 전승에서는 이들의 고향이 간다라 지역이었다고도 하며, 어떤 전승에서는 스리랑카나 미얀마라고 한다. 불교학계에서는 간다라,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발흐 지역이 그 두 상인의 고향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라노프(Granoff 2005) 및 알론(Allon 2009)의 논문 참조.

교 성지로 여겨졌다. 미얀마 콘바웅(Konbaung) 왕조의 알라우파야(Alaungpaya, 1752-1760 재위) 왕은 18세기 중반 남하하여 몬족의 땅을 점령한 후, 쉐다곤 사원을 중창했다. 이후 1774년 신부신(Sinpyushin) 왕은 쉐다곤 탑의 맨 꼭대기를 장식한 티(hti)라고 부르는 상륜부를 원래의 몬족 양식 대신 버미족 양식으로 바꾸어 버미화시켰다(Edwards 2006: 200). 이는 쉐다곤 사원의 소유와 공양이 통일 왕조로서의 콘바웅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잊혀졌던 쉐다곤 사원의 성지로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것은 영국 식민지시대이다. 19세기 전반 영국과 미얀마의 전쟁이 시작되고 남부 지역을 영국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영국군은 쉐다곤 사원이 있는 싱구타라 언덕을 군사 요새로 삼았다. 한동안 영국군에 의해서 점령되어 황폐화되었던 쉐다곤 사원은 19세기 말부터 다시 종교적 공간으로 복원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반에는 쉐다곤 탑의 표면을 황금으로 덮기 위한 모금이 시작되었으며, 영국 왕실에서도 이 모금에 금을 보냈다고 한다(Edwards 2006). 그러나 1852년 이후부터 오랫동안 영국군이 쉐다곤 사원을 점유하면서 이 성지가 군사적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점은 영국 식민지시대의 미얀마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영국인들이 신발을 신고 쉐다곤 사원을 다니게 된 것은 미얀마 불교도들에게 극심한 종교적 모욕과 심리적 고통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1919년 영국 식민지 정부는 사원 내에서 신발착용 금지 조치를 수용하기는 했지만, 쉐다곤 사원의 성지 훼손 문제를 계기로 미얀마 불교도들의 영국 식민지 정부에 대한 반감은 계속 커져갔다. 1920년대 상좌부 불교 승려들은 민족주의 운동에 적극 가담하면서 쉐다곤 사원에서 시위와 집회를 이어갔으며, 이와 함께 쉐다곤 사원은 영국 식민지시대의 민족주의 운동과 학생 시위 집회의 중심 공간이 되었다(Moore et al. 1999; Edwards 2006; Seekins 2013; 김지혜

2020a; 김지혜 2020b).

현재의 쉐다곤 사원은 20세기 이후 복원된 공간이다. 붓다의 불사리가 모셔진 중앙의 황금색 불탑, 즉 주탑(主塔)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불교도들이 끊임없이 주탑에 금박을 붙이고 있다. 성물에 금박을 붙이는 공양의례는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불교도들의 독특한 공양의례인데, 미얀마에서는 성스러운 곳에 얇은 금박을 붙이는 의례가 매우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행해진다. 흥미로운 점은 주탑에 금박을 직접 붙이는 공양 의례는 남성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은 주탑 주위를 다닐 수는 있어도,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는 주탑 안쪽 공간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쉐다곤 사원의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은 시간에 주탑 안쪽 공간으로 사람이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탑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일반 관광객들이 쉽게 인식하지는 못할 뿐이다.

가장 성스러운 성물이 모셔진 가장 신성한 공간에 여성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미얀마 불교 문화의 독특하고 오래된 전통이다. 불교 사원내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간의 여성 진입금지”라는 성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미얀마의 상좌부 불교에서 여성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며, 공식적인 비구니 승가 제도가 없다는 점과 깊은 관계가 있다(이수창 2008; 윤종갑 2010). 물론 미얀마 불교에서도 “틸라신(thilá-shin)”이라고 불리는 여성 출가자 공동체가 있으며 이들의 종교적 활동이 사원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 출가 공동체는 성과 속의 경계에 있는 존재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Kawanami 1990; Kawanami 2013; Tsomo 2020). 그러므로 미얀마 불교 교단 내에 존재하는 젠더 차별성의 전통은 불교 성지 순례에 있어서의 공간 배치와 의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미얀마 관광국의 외국인 관광 확대 정책이 시행된 이후부터는<sup>11)</sup> 이러한 성지내 여성 진입 금지의 전통이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사라지긴 했다. 그러나 아직도 쉐다곤 사원을 비롯한 3대 성지는 모두 젠더적 공간 분리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어서, 성지 내의 여성과 남성의 공간 분리 현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쉐다곤 사원의 경우에는 중앙의 주탑 안쪽 공간을 제외한 다른 공간에서는 남녀의 공간 구별이 별로 없다. 주탑 사방에는 각각 불상을 모신 사당이 마련되어 있는데, 동쪽에는 구류손불, 남쪽에는 구니함모니불, 서쪽에는 가섭불, 북쪽에는 석가모니불이 봉안되어 있다. 그 주변에는 요일별 불상과 탑이 모여져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부속 건물들이 있다. 이 부속 건물들 중 상당수는 미얀마 불교에서 수호신으로 여기는 다양한 정령신, 즉 낮을 모신 사당들인데, 이러한 낮 사당 안에는 매우 사실적으로 만들어진 마네킹처럼 생긴 신상이 세워져 있어서 다소 기괴한 느낌이 든다. 낮 신앙은 미얀마 불교의 세속적 측면을 보여주는 독특한 토속 신앙인데(김성원 2005; 정기선 2019), 쉐다곤 사원 내에도 따자민(Thagya-min, 제석천)이나 보보지와 같은 낮들을 모신 사당들에서 경건하게 기도와 공양을 드리는 불교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그림 4). 범종을 봉안한 종각과 각종 건물들은 일반 신도들이 지나다니면서 꾸준히 공양 의례를 올리는 공간이다. 공양 의례의 대부분은 꽃과 쌀과 음식을 공양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며, 간혹 특별한 상에 금박을 붙이거나, 요일 불상들에 물을 끼얹는 공양 의례를 거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늘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도 공양 의례의 일부이다.

현재 양곤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은 대부분 쉐다곤 사원을 유명 관광지로 인식하여 방문한다. 사방의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미

11) 영국 식민지시대 이후 2020년까지의 미얀마의 외국인 관광과 성지 순례는 대체로 2012년 개방정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3대 성지 순례가 늘어난 것도 대체로 2012년 이후의 일이다. 미얀마의 외국인 관광 정책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크라스(Kraas et al. 2020) 참조.

얀마 불교도들과는 달리, 외국인 관광객은 대부분 서쪽에 마련된 관광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곤장 사원 위로 올라간다. 이때, 외국인들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복장에 대한 주의를 받게 된다. 우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가야 하며, 소매없는 옷이나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므로 긴 솔이나 치마를 빌려서 입고 올라가야 한다. 불교 사원 내부에서 맨발로 다니는 전통은 상좌부 불교 문화권에서는 보편적인 의례로서, 스리랑카와 미얀마, 태국 등에서 아직도 지켜지고 있다. 특히 미얀마의 불교 사원은 모두 맨발로 들어 가야 한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 영국인들이 쉐다곤 사원 내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던 것이 미얀마 사회에서 매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1919년부터 미얀마에 있던 영국 식민지 정부는 사원 내의 신발 착용 금지를 수용하게 되었다(Seekins 2013; 김지혜 2020b). 영국 식민지시대에 강화된 이 문화적 전통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사원 입장시 복장에 대한 주의 사항은 쉐다곤 사원 이외의 다른 불교 사원들에서도 엄격하게 지켜지는 편이다.

쉐다곤 사원을 불교 성지 순례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미얀마인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 온다. 특히 태국에서 온 불교도 관광객들의 비중이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쉐다곤 사원에서는 의례의 행위 참가 여부에 따라서 성지 순례자와 관광객의 성격이 구별이 되기도 하지만, 관광객 중에도 미얀마 불교도들의 일상 의례에 쉽게 참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지 순례자와 관광객의 구별은 사실 모호하다. 다만 미얀마인들은 꽃과 향, 과일 등의 각종 공양물을 바치고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고, 탑돌이를 하는 등, 종교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과 함께, 낮 사당에서 열심히 기도를 드린다는 점이 독특하다. 또한 미얀마인들은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와서 사원의 휴식 공간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거나 잠을 자는 등 일상 생활의 연장을 사원 공간에서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태국이나 한국, 일본 등에서 온 외국인 단체 성지 순례자들은 불교 경문을 외우고 나뭇대로의 의식을 거행하거나 다같이 탑돌이를 하는 등 각자의 문화적 전통을 따라서 다양한 종교 의례를 행하기 때문에, 현재 쉐다곤 사원 안에서 거행되는 불교 의례는 국제적이고도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양곤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미얀마 최대 최고의 불교 성지인 쉐다곤 사원은 미얀마 전국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과 전세계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언제나 사람이 많고 시끄럽고 복잡하다. 사찰의 참선 수행을 중요시하는 불교 문화를 가진 한국이나 일본 불교도들의 관점에서는 “불교 성지”라는 곳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이 고요함과 정결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쉐다곤 사원에서는 이러한 미덕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는 쉐다곤 사원이 양곤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에 매우 자연스럽게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언제나 사람이 많고 활발하게 살아있는 성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란함과 활발함으로 구현되는 생생함이라는 성격은 바로 살아 있는 미얀마 불교를 반영한 대표 성지로서 쉐다곤 사원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진정성을 드러내는 독특한 특징이다.

#### IV. 짜익티요 사원

몬주에 있는 짜익티요 사원은 양곤에서 바고를 지나 차로 약 4-5 시간 이상 달려가야만 도착한다. 이 사원은 해발 1102미터인 짜익토산 정상에 있어서, 옛날에는 모두 걸어서 산 위까지 올라가야만 했다. 지금도 산 아래부터 걸어 올라가는 진지한 순례자들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산 아래 입구에서 사원이 운행하는 트럭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 개통한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올라

갈 수도 있다. 이 사원은 양곤에서 당일로 다녀오기에는 도로 교통 상황이 나쁘고 제법 거리가 멀지만, 숙박 및 편의시설의 상태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 순례자들이나 관광객이 다소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 사원은 산 꼭대기 한쪽 절벽에 서 있는 황금색 바위 아래에 석가모니 붓다의 불발사리가 모셔진 곳으로 유명하다(그림 5). 황금바위로 불리는 이 바위 자체가 이 성지의 진정성을 대표하는 성물이다. 이 바위는 높이 8m, 둘레 24m, 무게 611.45톤의 거대한 화강암 바위로서, 현지 전승에 의하면 그



그림 5. 황금바위. 미얀마 몬주 짜익토 산 짜익티요 사원.

출처 : 2015년 12월 18일 필자 촬영

바위 아래에 붓다의 불발사리와 불치사리(佛齒舍利, Buddha's Tooth Relic)가 모셔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구전으로 내려오는 현지 전승과 근현대기에 사원에서 그 전승들을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전해지는 불사리의 전래 과정에 대해서는 전승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 그 기록들의 진정성도 불확실해서, 성지의 역사성과 진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Stadtner 2008; Stadtner 2011).

짜익티요 사원의 황금바위에 봉안된 붓다의 불발사리 관련 전승은 쉐다곤 사원에 전해지는 불발사리 전래 기록이 다소 변형된 것이다. 전승의 내용은 대체로 석가모니 붓다께서 생전에 몬주의 타톤

(Thaton) 왕국에 와서 6명의 수도승에게 각각 머리카락 하나씩을 주셔서, 모두 6개의 불발사리가 미얀마 남부지역에 전해졌는데, 그 중에서 세 개의 불발사리가 따자민의 도움으로 황금바위 아래에 봉안되었다고 한다(Stadtner 2008). 붓다께서 몬족의 땅을 직접 방문했다고 하는 전승은 역시 한타와디 왕조의 담마제디 왕 연간의 기록에서 처음 나타난다.

현재 바고(Bago)에 있는 깔라니(Kalyani) 비석은 1476년부터 1479년에 담마제디 왕의 발원으로 만든 비석으로, 현재는 파손된 상태의 10여개의 석판으로 남아 있다. 이 비석에는 미얀마 불교 전래와 관련된 전승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두 가지 이야기가 짜익티요 사원의 사리와 관련된 것이다(Taw 1892; Stadtner 1991). 그에 의하면, 붓다께서 생전에 제자 가밤파티(Gavampati)의 초청으로 가밤파티의 고향인 미얀마 남부의 타톤 왕국을 방문하셨다. 붓다는 그곳에서 6명의 수행자를 만나서 각자에게 불발사리, 즉 머리카락을 한 개씩 나누어주셨으며, 붓다의 입멸 이후에는 가밤파티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타톤의 왕에게 붓다의 불치사리를 전했다고 한다(주경미 2019: 243). 그렇지만, 깔라니 비석에는 짜익티요 사원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며 몬족의 타톤 왕국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깔라니 비석의 기록은 쉐다곤 사원과 마찬가지로 몬족의 한타와디 왕조가 가지고 있던 불교적 제왕 사상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술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짜익티요 사원이 깔라니 비석의 전승을 차용하여 붓다의 불발사리와 불치사리를 봉안한 황금바위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훨씬 더 후대인 근세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짜익티요 사원의 전승은 여러 가지 변형이 있어서, 3명의 수행자가 불발을 2개씩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불발들이 각각 여러 가지 인연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고도 한다. 이 중 어떤 저승이 정확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며, 일부 전승은 이 지역의 고유한

낮 신앙과 연결되기도 한다. 짜익티요 사원에는 여러 곳의 낮 사당이 세워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낮 사당은 입구 양쪽에 세워진 낮 쉬난찐(Shwe Nan Kyin)의 사당이다(그림 6). 쉬난찐은 알에서 태어난 나가(naga) 공주로서, 나중에 타톤 왕국의 왕비가 되었다가 비극적으로 죽은 여성이다. 쉬난찐과 황금바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녀가 죽은 후에 이 곳의 낮이 되었다는 것이 이 지역의 전통 신앙이다. 어떤 전승에서는 몬족과 결혼한



그림 6. 낮 쉬난찐 사당에서 공양을 올리는 미얀마 불교도. 짜익티요 사원 경내. 출처 : 2015년 12월 18일 필자 촬영

쉐난찐의 여동생이 카렌(Karen)족과 결혼했다고 하여 쉬난찐과 카렌족과의 인척 관계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짜익티요의 낮 쉬난찐 사당에는 쉬난찐 가족들 중에 카렌족 복식의 인물들이 다수 표현되어 있다. 스타트너에 의하면, 쉬난찐과 카렌족이 연결된 복잡하고 기이한 짜익티요의 전승들은 대부분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형성된 현대적 전승이라고 한다(Stadtner 2008; Stadtner 2011).

현재의 황금바위는 사람들이 화강암 자연 바위 표면에 금박을 붙이면서 형성된 것으로, 역시 미얀마 불교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양의례인 금박 붙이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쉬다곤 사원의 주탑과 마찬가지로, 이 황금바위에 금박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역시 남성들뿐이다. 이 바위가 서 있는 절벽 윗부분 공간은 성지 내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다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격리된 공간이다.

그러나, 이 공간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금박을 붙이는 공양의례를 드리는 남성 불교도뿐이다. 여성은 그 공간으로 절대로 들어 갈 수 없으므로, 여성 불교도들은 순례를 와서도 황금바위 절벽 아래 공간이나, 아니면 황금바위가 보이는 산 능선쪽에서만 바라볼 수 있다. 바위에 금박을 붙이고 싶은 여성은 동행한 남성, 혹은 사원의 승려들을 통해서 대리roman 공양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 성지 내의 공간이 구분되고 직접 거행할 수 있는 의례가 달라지는 것은 미얀마 불교 문화의 젠더 차별성 전통에 의거한 것이다.

성지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갈 수 없는 여성들은 당연히 성지의 의례에서 주변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지에서 주변화된 여성 순례자들이 적극적으로 찾는 독특한 공간이 바로 낮 사당이다. 특히 비극적인 생애를 살았던 쉐난쨌 왕비를 모신 낮 사당이 대표적인 예이다(그림 6). 낮 쉐난쨌 사당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참배하는 곳으로, 여성들은 낮 상에 직접 돈과 공물을 바치며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그곳의 승려들에게 점을 치거나 부적을 받는 기복적 의례를 거행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렇게 성지의 낮 사당에서 일어나는 여성 순례자들의 기복적 의례 행위의 근본적 원인이 바로 성지 공간의 젠더 차별성 전통에 있다고 생각한다. 성지 내의 공간 분리와 의례 차별화와 같은 젠더 차별성 전통은 미얀마 상좌부 불교의 전통성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전근대적 사회 전통의 대책없는 계승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아쉽게도 미얀마 현지 불교도들 사이에서는 남녀 모두 이러한 전통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미얀마의 현실적 불교 제도적 측면에서 유지되고 있는 전통적인 젠더 차별화 경향은 향후 미얀마 불교도와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을 여기에서 더 진전시키지는 않으려 한다.

잠시 방문하는 외국인 순례객들과는 달리, 미얀마인들은 짜익티요

사원을 평생 꼭 한번 이상 순례하고자 하는 가장 유명한 성지로 인식한다. 그래서 일생에 한번 마음먹고 순례를 온 미얀마 불교도들은 사원 경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며칠씩 지내는 경우가 많다. 사원 경내에는 이렇게 며칠씩 기도드리며 순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텐트 같은 공간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고, 아기를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순례 여행을 와서, 다같이 먹고 자고 기도하며 지내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음식과 물건을 파는 상점과 사람들이 사원 내에 매우 많다. 또한 사원 내의 수많은 낮 사원에서는 시끄럽고 큰 소리로 주문이나 기도를 드리며 공양을 올리는 사람이 많아서, 실제 사원 내의 분위기는 시끄러운 시장에 가깝다.

미얀마 불교도들은 이 곳을 평생 세 번 순례하면 건강과 부유함, 그리고 행복이 모두 온다고 믿는다. 여기를 순례한 이후 갖가지 기적을 얻었다는 영험담들이 민간에 널리 퍼져 있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순례하러 온다. 이러한 일반 순례자들의 영험담 경험 확산과 믿음이 바로 짜익티요 사원이 성지로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진정성의 근원이 된다. 짜익티요 사원의 공간과 의례에서의 젠더 차별성 전통과 지역 전통이 강한 독특한 낮 신앙 및 공양의례 등은 미얀마 불교도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살아 있는 불교 성지 문화의 일부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불교도들에게는 이 공간의 독특하고 이질적인 불교 문화와 전통 자체가 비불교적이고 기복신앙의 일환이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지가 국제적 불교 성지로 성장하기 어려운 한계점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짜익티요 사원이 국제적 불교 성지로 성장하기 어려운 또 다른 어려움은 교통 편의성 및 접근성의 위험도가 높다는 점이다. 필자도 역시 짜익티요 사원의 성지 순례 과정에서 산 아래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교통 안전의 문제를 직접 겪은 바 있다. 경사가 급하고 꼬불꼬불한 산길은 매우 위험한데, 거기에 올라가는 차편은 정원이 정해



그림 7. 짜익티요 사원으로 올라가는 트럭들.  
출처 : 2016년 12월 18일 필자 촬영

지지 않은 오픈 트럭을 타고가야만 했다. 천정과 좌석 없이 사람들이 가득 매달려 타는 이 트럭은 교통사고를 상당히 많이 일으켜서(그림 7), 탑승자 전원 사망과 같은 교통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다.

미얀마에서는 짜익티요 성지 순례 과정에서의 교통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케이블카를 설치하였다. 2015년 한국의 스카이 인터네셔널사가 미얀마 아시아 인터네셔널 피셔리즈사와 협력하여, 짜익티요 사원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했다(김경삼

2015). 이 케이블카는 미얀마 불교 성지 및 관광지에 최초로 설치되는 관광용 케이블카로서 주목받았으며, 2017년 말 완공되었다. 2018년 한국 기업이 공사비 체불로 피소되기는 했으나(이준성 2018), 케이블카 운행은 그 즈음부터 시작되었다(Han 2017). 다만, 1회 탑승에 10불 정도로 책정이 된 케이블카 탑승 비용은 현지 물가에 비해 상당히 비싸고, 도착 지점과 사원 성소까지의 거리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 순례자들은 아직도 케이블카보다는 기존의 트럭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전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동안은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교통 안전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러한 위험을 이겨내고 이루는 성지 순례의 성취감 때문인지, 지금도 미얀마 불교도들은 이

곳을 평생 꼭 가보고 싶은 위대한 성지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짜익티요 성지 순례에 나서고 있다. 향후 좀 더 나은 교통 및 안전 관리 방안의 개선을 통해서 짜익티요 성지의 문화적 전통이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V. 마하무니 사원

미얀마 왕조시대의 마지막 수도였던 만달레이에 있는 마하무니 사원은 유명한 “마하무니 불상(Mahamuni Buddha)”을 모신 곳이다. 마하무니 불상은 원래 미얀마 서부 라카인 지역의 트라우우(Mrauk-U)에 있던 마하무니 사원에 모셔져 있던 것으로, 보관불(寶冠佛) 형식의 항마촉지인 불좌상이다.

이 불상이 라카인 지역에서 현재의 만달레이 사원으로 옮겨진 것은 18세기 후반 쏘바웅 왕조의 보도파야 왕이 라카인 왕국을 정벌한 이후이다. 보도파야 왕은 1784년 불교의 번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라카인 왕국을 침략하였으며, 그때까지 독자적인 역사를 지닌 왕국이었던 라카인 왕국은 1785년 패망하여 쏘바웅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보도파야 왕은 라카인 왕국과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라카인 왕실의 상징이었던 마하무니 불상을 수도 아마라푸라로 옮겨와서 새로 사원을 건립하고 봉안하였다(주경미 2019: 246). 즉 이 불상은 쏘바웅 왕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승전비의 성격을 가진 불상이다. 이 불상은 한타와디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던 쉐다곤 사원의 불사리와 마찬가지로, 미얀마 만달레이 왕조의 불교적 제왕 사상을 드러내는 정치적 성격의 성물이자 동시에 만달레이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성지의 핵심 성물이다.

버마족과는 완전히 언어와 풍습이 다른 라카인 왕국은 18세기에

아라칸 왕국, 혹은 트라우우 왕국이라고도 불렸으며, 일찍부터 포르투갈 상인들을 비롯한 서양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던 불교 국가이다(Gutman 2001). 라카인 왕국의 연대기에 의하면, 이 지역의 역사는 인도에서 온 석가족의 왕자가 단야와디 왕국과 베살리 왕국을 세우면서 시작되었으며, 석가모니 붓다의 친족 계보를 있는 왕국으로서의 정통성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었다. 이 연대기에서는 석가모니 붓다가 생전에 오백나한과 함께 단야와디 왕국의 찬드라수리야(Chandrasurya) 왕을 찾아와서 설법을 하고 그 왕을 불교에 귀의시켰다고 한다. 당시 붓다가 인도로 돌아가실 때에, 붓다를 흠모하던 찬드라수리야 왕이 붓다의 허락을 받아 붓다의 모습대로 청동 불상을 만들었는데, 붓다가 직접 그 상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불열반 이후 5천년간 같은 자리에서 붓다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고 한다. 마하무니라는 말은 “위대한 성자”라는 뜻으로, 붓다의 형상을 그대로 조형화한 불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Tun 1996; Schober 1997; Thaw 2004; Leider 2009). 라카인의 전승에서는 이 불상이 자리를 옮기는 것은 미래불인 미륵이 나타났을 때라고 전한다. 그러므로 라카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만달레이 왕조의 보도파야 왕은 불상을 만달레이로 옮기고나서, 자신이 바로 미륵임을 자칭하고자 하기도 했다(Stadtner 2011; 주경미 2019: 246).

라카인의 마하무니 붓다 전승은 물론 매우 후대에 찬술된 것이다. 일단 붓다 재세시에 라카인을 방문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존하는 불상은 상당히 늦은 시기의 미얀마 불상 양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불교사적 관점에서 보면 붓다 재세시에는 어느 지역에서도 불상을 거의 만들지 않았으며, 이렇게 불상을 만들지 않는 무불상시대의 전통은 기원전후의 시기까지 이어져왔다. 이 불상의 정확한 제작 연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현재의 불상은 높이 3.8m의 청동상으로, 높고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몸에는 X자 형태의 장신구



그림 8. 마하무니 붓다 전경. 미얀마 만달레이 마하무니 사원.  
출처 : 2019년 8월 4일 필자 촬영

를 착용한 상으로, 현세의 제왕을 모방해서 만든 항마축지인의 보관불 형식이다. 그렇지만 이 상의 형태는 라카인에서 가져왔을 때의 형태와도 완전히 달라진 상태여서, 불상의 정확한 양식과 편년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는 다른 성지들과 마찬가지로, 이 불상에 대해서도 표면에 금박을 붙이는 공양 의례가 꾸준히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8). 이러한 항마축지인의 보관불 형식은 인도에서 시작하여 동남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미얀마에서는 16세기 이후부터 이러한 형식의 불상이 성스러운 불상 형식으로 여겨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만달레이의 마하무니 사원은 미얀마 마지막 왕조의 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성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달레이 지역

불교 문화의 중심지이다. 바간의 아난다 사원을 모방한 십자형 평면의 사원 중앙에 모셔진 마하무니 불상은 미얀마 불교도들에게 석가 모니 붓다가 직접 숨을 불어 넣은 성스러운 불상이자 지금도 살아있는 붓다 그 자체로 여겨지고 있다. 이 사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승려들이 이 불상의 얼굴을 씻기는 세안식(洗眼式)을 거행하며, 불교도들은 불상의 몸에 금박을 붙이는 공양의례를 하루 종일 거행한다.

이 사원도 다른 성지들과 마찬가지로 성소 공간의 젠더 차별성 전통이 강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불상이 모셔진 성소 공간에는 남성만 들어 갈 수 있다. 여성들은 성소 바깥에서만 기도와 공양을 드릴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 불상이 모든 근심을 가져가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는 수많은 여성 신도들과 출가자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매일 이 곳에 와서 기도와 공양을 올린다. 성소 바깥의 여성들은 불상에 금박을 붙이는 남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를 올리며, 성소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는 남성들의 공양 의례 장면을 좀 더 크게 확대하여 실시간으로 성소 바깥쪽 사람들에게 비추어준다(그림 8). 이렇게 현대적 영상 기술을 통하여 성소 내부의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바깥쪽의 여성 신도들은 자신이 의례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쉬우나, 실제로는 그저 그 행위를 바라보고 구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성소내 영상 송출은 성지의 전통적인 젠더 차별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지만, 젠더성의 해결보다 금을 붙이고 보시하는 사람들을 홍보하며 성지의 상업적 관광화 및 세속화 경향의 가속화를 가져오는 것일 수도 있다.

만달레이 마하무니 사원은 만달레이에서도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역시 수많은 국내외의 순례자와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다른 두 성지들에 비해서 만달레이 사원 내부는 비교적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으며, 짜익티요 사원처럼 눈에 띄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낮 사당이 없다. 사원 내부에는 사원의 역사를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한 전시관과 사원에 봉헌된 공양품들을 전시하는 사원 박물관, 그리고 경전들을 모아 놓은 경장 등이 있으며, 끈바웅 시대에 전국 각지에서 모아 놓은 석비들을 모아 놓은 곳도 있어서 상당히 정결한 분위기가 남아 있다.

성지에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공양품 및 순례 기념품 등을 사는 공간은 사원으로 들어오는 사방 복도에 마련된 시장들이다. 이 시장은 만달레이 불교도들이 필요한 대부분의 불교용 의례용품들과 불상, 그리고 관광객용 공예품등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으므로, 사원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역 불교도들의 경제적 터전이기도 하다.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기념품들 중 상당수는 마하무니 불상 사진과 복제품들이다. 이 시장의 상점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은 대부분 사원 인근의 공방에서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전통 예술품들이다. 이들을 제작하는 공방들 중에는 석조 및 목조 불상 제작 공방들이나, 불상의 표면에 붙이기 위한 금박을 제작하는 공방과 같이, 전통 방식의 수공예 기술들을 보존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미얀마 전통 불교 공예 기술과 산업을 보존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마하무니 사원 안에는 다른 두 곳의 성지와는 달리 본격적인 낮 사당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경내에 보관되어 있는 캄보디아 앙코르 시대의 청동제 조각 6점이 오랫동안 낮의 역할을 했다(그림 9). 이 청동상들은 보도파야 왕이 라카인 왕국에서 승전기념물로서 가져온 것으로, 코끼리상, 사자상, 신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얀마 불교도들은 이 상들을 이 사원 내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물 중 하나로 손꼽는데, 환자들이 와서 이 청동상을 만지면 아픈 것이 낫는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주경미 2019). 치유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 상들을 만지고 기도를 드리면서 그 영험담을 퍼뜨렸다. 역시 마하무니 불상이 모셔진 성소에 들어갈 수



그림 9. 미얀마 순례자들이 공양을 올리는 청동 코끼리상. 캄보디아 앙코르 시대 12-13세기경. 만달레이 마하무니 사원 소장. 출처 : 2014년 2월 18일 필자 촬영



그림 10. 유리장 속의 청동 코끼리상. 캄보디아 앙코르 시대 12-13세기경. 만달레이 마하무니 사원 소장. 출처 : 2019년 8월 4일 필자 촬영

없는 여성 불교도들이 이 청동상 공양 의례의 주역들이었다.

2018년부터 이 상들은 문화재로서 보호하기 위해서 수리하고 유리 전시장 안으로 옮겨졌다(그림 10). 그리하여, 마하무니 사원에 순례를 온 미얀마 불교도들은 더이상 이 청동상들을 직접 만지며 기원과 공양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만달레이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이 되면서 국제적 유적 보존 기준에 맞춘 문화유산 보호 정책으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유산 보호 정책으로 인하여, 만달레이 현지 불교도들의 입장에서는 치병(治病)을 기원하는 중요한 종교 의례 공간이 사라진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마하무니 사원은 불교 성지이기도 하지만 만달레이 왕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동시에 국제적 관광지이기도 하다. 다른 두 성지에 비해서 좀 더 조용하고 정결한 분위기로 관리되고 있는 이 사원은 국제적 문화유산 보호 기준과 방식을 고려하여

사원 관리 방식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마하무니 사원은 미얀마 전통 사회에서 불교 사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보여주는 곳으로 중요하며, 미얀마 왕실 문화를 대표하는 정치적 권위를 가진 곳으로서도 중요하다. 왕실 문화와의 관련성이 다소 모호한 짜익티요 사원과는 달리, 양곤의 쉐다곤과 만달레이 마하무니 사원은 미얀마 왕실의 정치적 권위와 정당성을 대표하는 곳으로서 지금도 미얀마인들의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곳들이다. 미얀마의 3대 불교 성지들은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성스러운 곳이라기 보다는, 종교적 성스러움을 바탕으로 미얀마인들의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왔으며 지금도 계속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는 독특한 미얀마인들의 “삶의 공간”, 그 자체인 것이다.

## VI. 맺음말

이상에서 미얀마의 3대 불교성지에 대해서 각 사원별 역사성과 주요 성물의 특징 및 의례 공간에서 보이는 젠더성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 보았다. 이 3대 불교 성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는 곳은 15세기 한타와디왕조의 담마제디 왕이 세운 비석이 남아 있는 쉐다곤 사원이다. 짜익티요 사원의 경우에는 구전 전승 이외의 기록은 별로 찾아볼 수 없으며, 만달레이 마하무니 사원은 18세기 후반 만달레이 왕조의 라카인 왕국 정복 기념을 위해서 세워진 근대적 사원이다.

세 성지는 모두 석가모니 붓다 재세시부터 직접 받은 성물들을 봉안한 곳이라는 전승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핵심 성물들의 존재를 통해서 성지로서의 진정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쉐다곤과 짜익티요 사원은 불사리가 핵심 성물이지만, 이 성물 자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사리가 봉안되었다고 전하는 황금색의 탑 자체가 성지의 핵심 성물이 된다. 마하무니 사원은 붓다의 재세시에 만들어지고 붓다가 직접 숨을 불어 넣었다는 불상이 핵심 성물로서, 이는 라카인 왕조의 상징물을 만달레이 왕조가 획득해왔다는 전쟁 승리의 상징물이자 동시에 만달레이 왕조의 정치적 정당성의 상징물이 되었다. 그러나 이 세 사원의 전승들은 모두 15세기 이후 나타난 것으로, 실제 석가모니 붓다가 미얀마 지역의 어떤 곳이라도 직접 방문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 쉐다곤과 짜익티오의 성물들은 모두 15세기 한타와디 왕조의 독특한 불발사리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스리랑카 불교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 한편, 마하무니 사원의 경우에는 18세기 만달레이 왕조의 군사적 팽창과 정통성을 드러내는 정치적 성격의 성물이다. 이와 같이 각 사원의 성지 형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역사성은 이 성지들이 미얀마 역사와 관련된 유적이자 주요 왕조의 정치적 상징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 성물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고려한다면, 현대 미얀마의 3대 불교 성지는 모두 15세기와 18세기, 그리고 미얀마 왕조의 멸망과 함께 시작된 영국 식민지시대 등과 같이 미얀마의 역사 및 사회적 변화기에 형성된 불교 성지들에 해당한다. 미얀마 불교도들이 이 세 곳을 3대 성지로 묶어서 대표적 성지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 영국 식민지시대부터이다. 그러므로 이 3대 성지의 형성은 영국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독특한 미얀마의 민족주의적 불교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세 성지는 모두 핵심 성물이 봉안된 성지의 핵심 성소 구역 내에는 여성 출입을 금지하는 성소 공간의 젠더 차별성 전통을 지금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핵심 성소 내의 여성 출입 금지는 출가자를 포함한 여성 불교도들이 성지의 종교 공간과 의례에서 주변화되

는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에, 불교 성지 내에서의 젠더 불평등 현상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계의 보수적 젠더성은 불평등은 미얀마 불교에서만 보이는 현상은 아니었으며, 지금도 이슬람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서도 상당히 종종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Kylingorová et al. 2015). 이러한 종교적 성차별 현상은 종교 자체의 전통성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부터 막연히 인류 사회에서 전해지는 사회문화적 불평등과 전통적 문화 보수성의 근간이기도 하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핵심 성소의 여성 출입 금지가 많이 해제되어 3대 불교 성지와 몇몇 주요 지역을 제외하면 여성과 남성의 공간 차별 현상은 많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성스러운 공간과 의례의 젠더성을 유지하는 것이 성지의 종교적 위상과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건한 미얀마 불교도들이 많기 때문에, 미얀마 불교 성지의 공간 차별적 젠더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이러한 미얀마 불교 문화에 나타나는 젠더 차별적 현상에 대해서는 미얀마 불교 성지를 순례하는 외국인 순례자, 혹은 관광객의 주의를 필요하다. 현대 외국인의 눈에는 젠더 차별성으로 보이는 현상일지라도, 미얀마 사회의 문화적 전통성과 보수성에 대해서 외부인으로서의 존중과 예의를 먼저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얀마 3대 불교 성지 공간과 의례에서 나타나는 젠더 차별성은 사실 현대 미얀마 불교 문화에 두루 나타나는 젠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연구 및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현대 미얀마의 3대 불교 성지는 사실 미얀마의 내국인 불교도들을 위한 공간이다. 불교도들의 일상 생활과 매우 밀접한 이 성지들은 수많은 내국인들이 끊임없이 순례를 오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이 많고 혼잡하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미얀마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이 성지들이 모두 대표적인 미얀마의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성

지 순례 목적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히 자주 방문하는 곳들이다. 이 곳들을 실제로 방문해보면,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종교적 성지에서 기대하는 성스럽고 경건한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관광객과 상인들로 인하여 매우 혼잡하고 세속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이어서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미얀마 불교도들에게 가장 성스럽고 영험한 성지들로 알려진 이러한 성지들은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지켜야 할 종교적 규율과 의례들이 전통 문화에 따라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먼저 현지 종교 문화에 대한 존중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2021년 2월 군부의 쿠데타로 인하여, 현재 미얀마의 외국인 관광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미얀마 정부가 1996년 이후 꾸준히 추진해왔던 미얀마 관광 발전계획 및 각종 정책들은 중단 상태이며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를 통한 국가 수입 증대라는 목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코로나 직전까지 미얀마 관광에 대한 국내외 학계와 대중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았으며, 미얀마 정부가 2013년 6월 발표했던 <미얀마 관광마스터 플랜 2013-2020 (Myanmar Tourism Master Plan 2013-2020)>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Ministry of Hotels and Tourism 2013; 2019). 이 플랜은 미얀마 관광산업의 개발과 국제 관광객 유치 활성화가 목적이었으며, 그 결과 2018년 여행 및 관광 분야는 미얀마 GDP의 5.2%를 차지할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WTTC 2018: 3). 이러한 여행 및 관광 분야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태국과 한국 등 아시아 관광객들의 종교 문화유산, 즉 불교 유적의 “순례 관광(Pilgrimage Tour, 혹은 Religious Tour)”이었다(Choe et al. 2015; Mercer 2018). 코로나 직전까지의 미얀마 불교 성지 순례 관광은 주로 태국과 싱가포르의 불교도들에 의해서 주도된 경향이 강하지만 한국과 일본 불교계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

고 있었다.

미얀마 정부에서는 국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미얀마 유적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노력을 기울여서, 2019년에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 지역인 바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얀마의 유산은 뿌 시대의 유적(Pyu Ancient Cities)들과 바간 두 곳으로, 모두 고대 역사도시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불교 사원과 성지들이 남아 있는 지역들이다. 3대 성지 중에서는 마하무니 사원이 1996년 만달레이와 아마라푸라 지역 유적들과 함께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등재되었으며, 2018년에는 쉐다곤 사원이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다.

지금까지 한국 학계에서 미얀마의 불교 성지에 대한 관심은 바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 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진행된 경향이 강하다(정기선 2006; 킴소 외 2014; 테테웨이 외 2016; 싸우라인따인 외 2018; 싸우라인따인 외 2019; 이초 외 2020). 그렇지만, 현대 미얀마 불교도들의 종교 문화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성스러운 순례지로 여기는 3대 불교 성지의 역사성과 성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 3대 불교 성지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가장 큰 난제는 현대 미얀마 정부의 혼란한 성지 관리 정책이다. 현대 미얀마 정부에서는 불교 유적지의 관광 산업과 문화적 전통의 보존 문제를 각각 호텔관광부와 종교 문화부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불교 성지의 관리와 개발에서 두 부서의 충돌 및 실제 성지를 관리하는 해당 성지 공동체와의 충돌 및 대립 등을 종종 일어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세운 외국인 관광객의 증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과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는 불교 성지 관리에 있어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현지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문화적 충돌의 기회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성지에는 사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업화 경향만 주도하면서 성지의 신성성을 훼손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불교 성지 겸 유적지들의 관광 개발에 있어서는 좀 더 지역 공동체와 사원의 종교적 주체성과 협의를 중시하면서, 정부 부처간의 공공적 발전 방향을 위한 논의가 좀 더 민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성지들을 방문하는 국제적 순례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외국인 순례자, 혹은 관광객들의 미얀마 현지 불교 문화의 전통성에 대한 이해 홍보도 필요하다.

한편, 미얀마의 3대 성지들이 향후 좀 더 국제적 위상을 가진 불교 성지로서 발전하고 싶다면, 국제 불교계의 다층적 시각들을 포괄하는 진정성있는 불교 성지로서의 문화적 포용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젠더 차별성 문제의 개선은 진지하고 심층적으로 고민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얀마 불교계의 현명하고도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을 통해서 미얀마의 지역별 불교 문화 전통과 국제 불교 문화와의 적극적 교류와 조화로운 상호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이 성지들이 좀 더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진 위대하고 성스러운 불교 성지들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미진한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강희정. 2005. “보드가야의 불교유적과 구법승.” 『미술사와 시각문화』 4: 268-299.
- 강희정. 2019. “바간의 불교사원.” 부산박물관 편, 『미얀마의 불교미술』. 부산: 부산박물관. 76-81.
- 김경삼. 2015. “한국 스카이인터내셔널, 미얀마서 케이블카 합작사업.” 『글로벌이코노믹』 1월 14일.
- 김성원. 2005. 『미얀마의 종교와 사회』.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 김소영·천득염·곽유진. 2016. “쉐다곤 불탑의 상징적 의미와 구성 형식에 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5(6): 35-44.
- 김지혜. 2020a. “미얀마 쉐더공 파고다 공간의 전통적 재현.” 『동남아시아연구』 30(4): 335-379.
- 김지혜. 2020b. “미얀마 쉐더공 파고다의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재현 및 실천.” 『아시아연구』 23(3): 279-306.
- 김형규. 2005. 『붓다의 나라, 미얀마』. 서울: 운주사.
- 남동신. 2010. “慧超 『往五天竺國傳』의 발견과 8대탑.” 『동양사학연구』 111: 1-32.
- 부산박물관. 2019. 『미얀마의 불교미술』. 부산: 부산박물관.
- 서성호. 2011.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서울: 두르가.
- 서성호. 2017. 『골든미얀마』. 서울: 두르가.
- 송강. 2015. 『송강스님의 미얀마 성지순례』. 안양: 도서출판 도반.
- 싸우라인따인. 이태희. 2018. “미얀마 문화유산 관광지에 대한 외래 관광객의 진정성인식이 관광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2(8): 37-51.
- 싸우라인따인. 이정민. 이태희. 2019. “미얀마 문화유산 관광지의 진정성과 행동의도 관계연구: 바간의 감각유산 매개효과를 중

- 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5): 21-36.
- 안양규. 2000. “불교의 성지 순례와 그 종교적 의의.” 『종교문화연구』 2: 109-125.
- 우혜란. 2008. “동시대의 ‘순례’와 ‘성지’에 대한 고찰.” 『종교학연구』 27: 35-66.
- 우혜란. 2018. “현대사회에서 성물(聖物)의 유통방식에 대하여 - 부처의 진신사리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35:35-68.
- 윤종갑. 2010. “불교에서의 평등과 차별 - 젠더와 깨달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5: 179-204.
- 이수창(마성). 2008. “상좌불교의 비구니승가 복구 문제.” 『한국불교학』 50: 399-428.
- 이주형. 1993. “佛傳의 『舍衛城神變』說話 - 文獻과 美術資料의 檢討.” 『진단학보』 76: 27-56.
- 이주형 외. 2009.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 서울: 사회평론.
- 이준성. 2018. “유선하 스카시아시아 대표 “동남아 국가라고 알보지 말라”더니.” 『Korea IT Times』 5월 2일.
- 이초·김상혁. 2020. “문화유산관광지의 지각된 관광수용태세가 외래 개별관광객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미얀마 바간을 대상으로.” 『관광연구논총』 32(2): 49-70.
- 정기선. 2006. “해외불교성지순례의 현실과 과제.” 『문학 사학 철학』 4: 73-84.
- 정기선. 2019. “낫(Nat) 신앙과 불교.” 부산박물관 편, 『미얀마의 불교미술』. 부산: 부산박물관. 140-143.
- 주경미. 2003.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서울: 일지사.
- 주경미. 2008. “불교미술과 물질문화: 물질성, 신성성, 의례.” 『미술사와 시각문화』 7: 38-65.

- 주경미. 2009. “遼代 八大靈塔 圖像의 연구.” 『중앙아시아 연구』 14: 141-172.
- 주경미. 2015. “불교 성지 순례의 재현과 미얀마 버강의 마하보디 사원.” 박장식 엮음, 『동남아 문화 이야기』. 서울: 슬과학. 198-229.
- 주경미. 2019. “미얀마의 불교적 제왕 전통과 불교미술.” 부산박물관 편, 『미얀마의 불교미술』. 부산: 부산박물관. 238-251.
- 주경미. 2020. “미얀마 바간 시대 아난다 사원의 창건과 양식.” 『동아연구』 39(1): 31-73.
- 차장섭. 2013. 『미얀마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나다』. 서울: 역사공간.
- 키칸소 이계희. 이경남. 2014. “국가 이미지가 관광지태도 및 방문 의도에 미치는 후광효과: 미얀마를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16(1): 18-40.
- 테테웨이·설훈구. 2016. “미얀마 파고다 관광지 이미지가 관광지 태도, 만족도,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8(5): 41-60.
- 홍문숙. 2021. “미얀마 2020: NLD 총선 승리의 시사점과 평화-민주주의-발전의 위기.” 『동남아시아연구』 31(1): 113-153.
- 홍문숙·김인애. 2022. “전환기 미얀마 개혁개방 10년의 도전과 위기: 국가발전정책·지식·권력의 국내외 역동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32(2): 201-242.

『長阿含經』

『大般涅槃經』

Allon, Mark. 2009. “A Gāndhārī Version of the Story of the Merchants Tapussa and Bhallika.” *Bulletin of the Asia*

*Institute* New Series 23. pp. 9-19.

- Aung-Thwin, Michael. 2005. *The Mists of Ramanna: The Legend That was Lower Burm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Brown, Robert L. 1988. "Bodhgaya and South-East Asia." Janice Lecoshko (ed.), *Bodhgaya: The Site of Enlightenment*. Bombay: Marg Publications. 101-124.
- Bruntz, Courtney and Brook Schedneck (eds.). 2020. *Buddhist Tourism in A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Choe, Jaeyeon and Michael O'Regan. 2015. "Case Studies 2: Religious Tourism Experiences in South East Asia." R. Raj and K. Griffin (eds.), *Religious Tourism and Pilgrimage Manage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2nd Edition*. Oxfordshir: CABI. 191-204.
- Coleman, Simon and John Elsner. 1995. *Pilgrimage: Past and Present In the World Relig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Edwards, Penny. 2006. "Grounds for Protest: Placing Shwedagon Pagoda in Colonial and Postcolonial History." *Postcolonial Studies* 9(2): 197-211.
- Fraser-Lu, Sylvia and Donald M. Stadtner (eds.). 2015. *Buddhist Art of Myanmar*. New York: Asia Society Museum and Yale University Press.
- Geary, David. 2017. *The Rebirth of Bodh Gaya*.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Granoff, Phyllis. 2005. "The Gift of the Two Merchants: Defining the Buddhist Community through Story." *East and West* 55(1/4): 129-138.

- Gutman, Pamela. 2001. *Burma's Lost Kingdoms: Splendours of Arakan*. Bangkok: Orchid Press.
- Guy, John. 1991. "The Mahābodhi temple: pilgrim souvenirs of Buddhist India." *The Burlington Magazine* 133(1059): 356-367.
- Han, Naw Betty. 2017. "Mon State inaugurates nation's first cable car." *The Myanmar Times*. 18 December.
- Hudson, Bob. 2005. "Ancient Geography and Recent Archaeology: Dhanyawadi, Vesali and Mrauk-u." "The Forgotten Kingdom of Arakan" *History Workshop Proceedings*.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1-8.
- Huntington, John. C. 1985. "Sowing the Seeds of the Lotus: A Journey to the Great Pilgrimage Sites of Buddhism, Part I." *Orientalism* 16(11): 46-61.
- Kawanami, Hiroko. 1990. "The Religious Standing of Burmese Buddhist Nuns (*thilá-shin*): The Ten Precepts and Religious Respects Words."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13(1): 17-39.
- Kawanami, Hiroko. 2013. *Renunciation and Empowerment of Buddhist Nuns in Myanmar-Burma: Building a Community of Female Faithful*. Leiden: Brill.
- Kraas, Frauke, Zin Nwe Nyint and Nicole Häusler. 2020. "Tourism development in Myanmar: Dynamics, Policies, and Challenges." Claudia Dolezal, Alexander Trupp and Huong T. Bui (eds.), *Tourism and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163-181.
- Kyaw Minn Htin. 2007. "The Forgotten Cities of Arakan, Myanmar."

-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utheast Asia Proceedings.*  
Kuala Lumpur: University of Malaya. 1-23.
- Kylingorová, Kamila and Tomáš Hvlíček. 2015. "Religion and Gender Inequality: The Status of Women in the Societies of World Religion." *Moravian Geographical Reports* 23: 2-11.
- Leider, Jacques P. 2009. "Relics, Statues, and Predictions: Interpreting and Apocryphal Sermon of Lord Buddha in Araka." *Asian Ethnology* 68(2): 333-364.
- Luce, Gordon H. 1969. *Old Burma - Early Pagán. Volume One Text.* Artibus Asiae Supplementum 25.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 Ma Thanegi. 2007. *Shwedagon Mystique.* Yangon: Asia House Publishing.
- Mercer, David. 2018. "Marketing Myanmar: The Religion/Tourism Nexus in a Fragile Polity." Richard Butler and Wantanee Suntikul (eds.), *Tourism and Religion: Issues and Implications.* Bristol: Channel View Publications. 161-181.
- Michalon, Martin. 2018. "Domestic Tourism and Its Spatiality in Myanmar: A Dynamic and Geographical Vision." *Asi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3(1): 116-158.
- Ministry of Hotels and Tourism. 2013. *Myanmar Tourism Master Plan 2013-2020.* Nay Pyi Taw: The Ministry of Hotels and Tourism,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Ministry of Hotels and Tourism. 2019. *Myanmar Tourism Statistics 2019.* Nay Pyi Taw: The Ministry of Hotels and Tourism,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Moore, Elizabeth, Hansjorg Mayer and U Win Pe. 1999. *Shwedagon:*

- Golden Pagoda of Myanmar*. London: Thames and Hudson.
- Schober, Julian. 1997. "In the Presence of the Burmese Mahamuni Image." *Sacred Biography in the Buddhist Traditions of South and Southeast A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59-299.
- Schober, Julian. 2001. "Venerating the Buddha's Remains in Burma: From Solitary Practice to the Cultural Hegemony of Communities." *Journal of Burma Studies* 6: 111-139.
- Seekins, Donald M. 2013. "Sacred Site or Public Space? The Shwedagon Pagoda in Colonial Rangoon." John Whalen-Bridge and Pattana Kitiarsa (eds.), *Buddhism, Modernity and the State in Asia: Forms of Engagemen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39-159.
- Stadtner, Donald M. 1991. "A Fifteenth-Century Royal Monument in Burma and the Seven Stations in Buddhist Art." *The Art Bulletin* 73(1): 39-52.
- Stadtner, Donald M. 2008. "The Golden Rock at Kyaik-hti-yo." *SOAS Bulletin of Burma Research* 6: 19-69.
- Stadtner, Donald M. 2011. *Sacred Sites of Burma: Myth and Folklore in and Evolving Spiritual Realm*. Bangkok: River Books.
- Stoddard, Robert H. 2010. "The Geography of Buddhist Pilgrimage in Asia." Adriana Proser (ed.), *Pilgrimage and Buddhist Art*. New Haven and London: Asia Society and Yale University Press. 2-4.
- Strong, John S. 2004. *Relics of the Buddh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w Sein Ko. 1892. *The Kalyani Inscriptions Erected by King*

- Dammaceti at Pegu: Text and Translation*. Rangoon: The Superintendent, Government Printing, Burma.
- Thaw Kaung. 2004. "The Mahamuni." *Selected Writings of U Thaw Kaung*. Yangon: Myanmar Historical Commission. 131-162.
- Tsomo, Karma Lekshe. 2020. *Women in Buddhist Tradi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Tun Shwe Khine. 1996. *A Guide to Mahamuni*. Yangon: Rakhaine Book Series.
- WTTC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18.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2018 Myanmar*. London: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21.07.27. 투고, 2021.08.01. 심사, 2022.08.18. 게재확정)

<Abstract>

## The Historicality and Traditionalism of the Three Great Sacred Sites in Myanmar Buddhism

Kyeongmi Jo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urveys the historicality and religious traditionalism in the Three Great Sacred Sites in contemporary Myanmar Buddhism. These sites are Shwedagon Pagoda Complex in Yangon, Kyaikhtiyo Pagoda a complex in Mon district, and Mahamuni Temple in Mandalay. These three Great Sacred sites are considered the oldest Buddhist sacred sites in Myanmar, which were built for enshrining the Buddha's sacred relics handed down from the time of Sakyamuni Buddha who lived in the 6th century BCE in India. However, the historicality of these sites may not reflect true history; they might have been created as new Buddhist sacred sites by the later Myanmar Buddhists from the sixteenth century to the British colonial Period for cultural conservatism under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Among the remaining conservative traditionalism in these Buddhist sites, the most important are the gendered spaces and rituals in the sacred places during pilgrimage. Such gendered pilgrimage brings out the religious marginalization of ordinary female Buddhists, who could not but prefer the Nat faith for blessing to the achievement of the sincere Buddhist faith. For the futur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se Three Great Sacred Sites,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ir accurate historicity and the cultural traditional points between localism and international Buddhism.

**Key Words:** Buddhist Sacred Sites, Pilgrimage, Gender, Mahamuni, Shwedagon, Kyaikhtiyo